이름: **WEEK 19**

May 5

사사기 3장

사사기는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정작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을 겪고 살아간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이 점에서 사사기는 오늘날 복음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도록 허락 받았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본장 5-7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타락해 가는지 그 단계를 보여줍니다.

1) 5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에 ( ) 하면서
2) 6절: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며, 자기 딸들을 그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 )을 섬겼더라.
3) 7절: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 ),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 ).

사사기 4장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솔 왕 야빈에게 넘기셨습니다. 강력한 철 병거 900대를 가진 야빈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하였고,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1-3절)
하나님은 누구를 사사로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철병거 구백 대를 포함한 강력한 군대를 가진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사사가 여자이고, 선지자였고, 한 남자의 아내라는 것이 참 독특하고 흥미롭습니다. 삼갈이나 삼손과 같은 일당백의 용사가 사사로 적합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군사적 능력이 없는 여자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객관적 조건과 자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인격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순종)입니다.

May 6

사사기 5장

본장은 4장에서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진멸한 후, 드보라와 바락이 부른 노래입니다. 이 일에 함께한 에브라임, 베냐민, 스불론, 잇사갈, 납달리 지파들(14-15절, 18절)을 언급하며, 이들의 동역을 무엇이라고 반복하여 표현하고 있나요? (2절, 9절)

사사기 6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7년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고, 미디안의 노략으로 이스라엘은 경제적 빈곤이 심해졌습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라고 불러 주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드온은 그의 행적으로 보아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1) 11절: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사람
2) 15절:
3) 27절: 아무도 몰래 밤에 수소를 잡고, 아세라 상을 찍었던 사람

May 7

사사기 7장

본장은 미디안 13만 5천명의 군사(8:10)와 기드온의 300 용사와의 전쟁과 승리를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에 쌓인 기드온에게 직접 내려가서 미디안 병사들의 대화를 엿듣게 하십니다(9-11절). 한 병사는 ( )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그 장막이 쓰러지는 꿈 이야기를 하니, 그의 친구가 그것은 ( ) 로써,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해석합니다.
*보리떡은 당시 먹을 것을 다 뺏기고 보리떡으로 연명하던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승리는 숫자와 사이즈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기드온에게 모였던 용사들에게 '백성이 너무 많은즉(2절),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4절)'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태도입니다.

사사기 8장

기드온은 충성스럽게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의 결말은 씁쓸합니다.

1) 24-26절: 금을 모았다(재물에 욕심을 냄)
2) 27절: (우상을 만듦)
3) 30-31절 :

May 8

사사기 9장

본장은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요담을 제외한 형제 70명을 죽이는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의 학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요담은, 세겜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경고하는 나무 비유(7-15절)를 들려줍니다.
아비멜렉을 비유하는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요?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는 달리 가시나무의 욕심과 교만을 볼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 맡기신 자리, 사명을 버리고, 욕심을 쫓아 우쭐대는 사람의 마지막은 비참하고 불행합니다.

사사기 10장

본장은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일어난 두 명의 소사사 돌라와 야일을 소개합니다. 돌라가 23년, 야일이 22년을 각각 다스렸는데, 그 시대의 평안함을 야일의 아들 삼십이 어린 나귀 삼십을 탔고 각기 삼십 성읍을 다스렸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은 그 시대의 평안함이 나태와 안일 그리고 (지도자들의) 부와 권력 축적으로 흘러가고 있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6절).
사사기의 반복적인 싸이클 (죄악-압제-부르짖음-구원)을 계속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2가지 마음은 무엇인가요?
1) 13절:

2) 16절:

('마음에 근심하셨다' 의미는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다', '더 이상 참기 어렵다'입니다)

May 9

사사기 11장

사사 입다는 엄마가 기생이고, 배 다른 형제들로부터 버림 받은 후, 잡류들과 어울렸다고 기록하는 아픔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입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11절), 해박한 역사적 지식과 성경에 대한 기초를 알고 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12-28절).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잘못된 서원을 하여 결국 누구를 번제로 드리게 되나요?

(몰렉신을 섬기는 모압 사람들이 자식을 신에게 바치는 제사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팽배했음을 보여줍니다)

사사기 12장

본장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입다의 공을 시기하여 입다에게 항의하고 불평한 지파는 누구인가요?
*사실 이들은 8장에서도 미디안과 싸운 기드온에게 똑같이 항의했던 지파였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지파간 전쟁이 일어나고,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나서지 않다가, 자기 백성들에게는 위협과 조롱을 앞세우며 싸우자고 합니다. 이에 대해 팀 켈러 목사님은, "만일 우리가 세상과 좋은 관계로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교회 안에서 연합을 더 추구하고 받은 모욕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간다면, 우리의 공동체들이 훨씬 덜 분열되고 훨씬 더 사랑이 넘칠 것이다."라고 권면합니다.

May 10

사사기 13장

본장는 예수님의 출생모습과 비슷한 삼손의 출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5절). 삼손의 아버지였던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삼손의 출생을 예고 받은 후, 구하였던 것은 무엇인가요? (8절, 12절)

*아버지 마노아의 질문은, 자녀를 키우는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행해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사기 14장

본장은 삼손이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기록합니다.
사실 이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고 하는 선한 목적이 있었지만(4절),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이방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합리화 될 수 없습니다. 이방여인들로 인해 삼손은 비극적인 인생의 결말을 맺게 되는데, 16:23절을 써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방배들이 이르되,
( )이 우리 원수 삼손을 ( )에 넘겨주었다.하고."